



# 제주 국제트레일러닝 '메이저' 대회로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 UTMB 월드시리즈 선정 오는 10월 6-8일 서귀포시 일원 4개 코스서 개최 예정을 참가 규모 외국인 등 작년보다 갑절이상 늘어날 듯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트레일러닝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월드시리즈로 선정돼 메이저급 대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3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UTMB(Ultra Trail du Mont Blanc) 월드시리즈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UTMB는 프랑스 사모니에서 매

년 8월 말에 개최하며 트레일러닝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참가해보고 싶어 하는 꿈의 대회이다.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를 포함해 세계 35개의 대회가 UTMB 월드시리즈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제주, 홍콩, 중국, 태국 4개국에서 개최한다.

UTMB 월드시리즈에 선정된 대회를 완주할 경우 프랑스에서 열리는 UTMB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의 UTMB 월드시리즈 가입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트레일러닝 코스가 됐으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회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 또 1회성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관광객과 동호인이 꾸준히 방문하는 코스로 발전해 제주 스포츠관광산업에 견인자가 될 것으로 서귀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회 규모와 참가자 확대에 기대효과가 커지고 있다. 올해 대회는 3500여명(외국인 1000여명)이 참가해 작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1962명이 예약한 가운데 외국인도 82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작년과 다르게 20km 코스를 추가해 총 4개 코스(10km, 20km, 50km, 100km)로 운영될 예정이다.

트레일러닝 입문 종목인 10km, 20km는 가시리 조랑말체험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50km와 100km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해 치유의 숲, 영실코스, 윗세오름, 한라산 둘레길 코스에서 펼쳐진다.

참가접수는 대회 홈페이지(https://transjeju.utmb.world/ko)를 통해 개별로 할 수 있으며, 장거리의 코스의 경우 참가인원(50km 1000명, 100km 1000명)이 채워지면 마감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WBC 참사는 잊고... 16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KBO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1회말 2사 상황 키움 이정후가 우중간 1루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만국가정원립 전국유도대회 여고부 단체전 시상식.

## 남녕고, 여고부 정상문턱서 '고배'

순천만국가정원립전국유도대회 단체전 준우승

이현지를 앞세운 남녕고가 2023 순천만 국가정원립전 전국유도대회(2023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및 꿈나무선수 평가전 겸)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녕고는 16일 전남 순천시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단체전 경기체고와의 결승전에서 2-3으로 석패하면서 아쉽게 첫 정상 타이틀을 놓쳤다. 남녕고는 지난해 5월 열린 청풍기대회 결승전에서의 패배 설욕의 기회도 잡지 못했다.

남녕고는 홍규리가 상대 김민지

를 한판으로 꺾으며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고미소가 배시은에게 경기를 내주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3번 주자는 +78kg급으로 고교무대 데뷔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현지가 고은아를 물리치며 다시 앞서갔다. 그러나 김예림과 정혜원이 잇따라 패하며 정상문턱에서 물러서야 했다.

앞서 8강전에서 인천체고를 3승 2패로 제친 남녕고는 광영외고와의 준결승전에서 정혜원, 이현지, 김예림이 승리하며 3승 1무 1패의 전적

으로 결승전에 진출했다. 조상윤기자

## 제주Utd, 영점 잡고 첫승 정조준

FC서울 상대 18일 K리그1 2023 4R 홈경기 서울 킬러 김주공 활용 공격 옵션 다양화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FC서울을 상대로 올 시즌 첫 승과 함께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제주는 18일 오후 4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홈 경기에서 FC서울과 격돌한다.

제주는 시즌 개막 후 3경기 연속 무승(2무 1패)을 기록하고 있다. 주장 최영준 등 여러 선수들이 부상자 리스트에 오르며 고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치르는 서울전에서 총력을 가하고 재정에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주는 서울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시즌 FA컵 16강전에서 1-3으로 패했지만 리그에서는 2승 1무로 압도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도 무려 7승 3무로 앞서고 있다.

제주는 올 시즌 3경기에서 1골만(리그 공동 19위) 기록하고 있다. 슈팅 시도가 적은 것은 아니다. 총

35개(리그 5위)의 슈팅을 시도했으며 유효슈팅은 14개(리그 4위)를 기록했다. 모두 리그 평균 수치를 상회한다.

마무리 과정에서 더 세밀한 작업이 이뤄진다면 다득점도 가능한 페이스다. 동계 훈련기간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였던 최전방 공격수 유리와 측면 공격수 헤이스의 콤비이션 플레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격 옵션에서 파생되는 마무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폭넓은 활동량과 골 결정력 그리고 스피드까지 뛰어난 김주공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선수다. 김주공은 지난해 8월 5일 서울과의 맞대결(2-0 승)에서 2선에 배치돼 상대 뒷공간 공략에 주력했고, 후반 5분 선제 헤더골까지 뽑아냈다.

김주공은 "지난 시즌 서울전에서 득점을 기록했지만 자신감은 갖되 자만심은 버려야 한다. 최선을 다해 서울전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상윤기자

## 대한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 지원 본격

올해 52개 종목 83개 대회 기량향상·지속 참여 유도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전국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 사업은 52개 종목(골프, 배구, 배드민턴, 빙상, 육상 등) 83개 생활체육대회를 지원, 동호인 선수의 기량 향상과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 생활체육대회의 종목별 분산 개최를 통해 지방의 생활체육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3월에 개최되는 3개 대회(제10회 대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전국축구대회(3.18-19), 제22회 대한체육회

장배 전국스키시도동호인대회(3.25-26), 제40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3.25-26))를 시작으로 1년간 83개의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한다.

특히 대회 운영 기본 안전지침과 스포츠 인력 현장 및 가이드라인을 종목단체에 배포해 생활체육대회의 안전과 스포츠 인력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 중에 종목단체 대회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스포츠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대회 여건을 강화해 동호인 축제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당 축 선**  
CONGRATULATIONS

**표선농협 조합장**    **서귀포시축협 조합장**




**김용우**    **김용관**  
(부: 김안길 · 모: 김복순)

표선농협조합장 및 서귀포시축협조합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삼촌과 이모**  
김창언·창돈·창두·창훈·정순

**당 축 선**  
CONGRATULATIONS

**표선농협 조합장**    **서귀포시축협 조합장**




**김용우**    **김용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토산1리 마을회·노인회  
청년회·부녀회·문고회**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서귀포시축협 조합장**



**김용관**

서귀포시축협 조합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시축협 임원 일동**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서귀포시축협 조합장**



**김용관**

서귀포시축협 조합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시축협상조회**